

좌익반대파에 대한 레닌의 비판과 코민테른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

좌익 반대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은 레닌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레닌은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 소아병』을 이들에 대한 답변으로 집필하여, 좌익 반대파가 의회와 노동조합의 본질적인 성격만을 파악했지 그것이 노동자 계급과 근로대중에게 미치는 현실적인 지대한 영향력과 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의미에서 레닌은 "부르주아 의화와 기타 반동적 기관을 없앨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에는 그 내부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들은 노동자 계급의 의식은 본래 혁명적이고 혁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도식에 얽매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한 노동자 계급 중 대다수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부르주아의 의식으로 세뇌당하고 마취되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따라서 레닌은 공산주의자가 "우리에게 진부한 것이라고 해서 계급, 대중에게도 진부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되며 "공산주의자에게 부여된 과제는 후진적 분자들을 자각시키고 그들 사이에서 활동하는 것이지, 고의적이고도 유치하게 '좌익'슬로건을 내걸어 스스로 그들과 율타리를 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레닌은 노동자대중의 혁명적 의식이 항상 전진하는 것도 아니며 혁명적 정세와 계급 역관계 또한 항상 심화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요구되는 것은 혁명적 구호와 투쟁만을 반복하는 혁명정당이 아니라 "모든 중간지점과 타협을 거치면서도 그 최종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는" 혁명정당이라고 지적했다.

좌익 급진주의에 대한 코민테른 내부에서의 투쟁은 1920년 7월의 코민테른 제2회 대회까지만 해도 그런대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같은 사상적 입장에 선 노선의 차이라는 식으로, 당시의 당면투쟁인 중앙파와 기회주의에 대한 투쟁에 가려져 전개되었다. 하지만 1921년 독일 '3월 행동'의 무참한 패배를 계기로 코민테른과 국제공산주의 운동 내부에서는 좌익 급진주의와의 차이가 단지 지엽적인 것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차이임이 드러나게 되었고, 당시 공산주의 운동 내에 팽배해 있던 좌익적 분파적 경향을 제어할 필요에 있어서도 좌익 급진주의와 공산주의 운동의 명백한 구별과 분리가 요구되었다. 그 결과 1921년 6월의 코민테른 제3회 대회에서는 좌익적 편향에 대한 격렬한 투쟁이 전개되어 좌익 급진주의는 코민테른에서 추방되었다. 좌익 급진주의의 추방은 1910년대 후반부터 전개되어온 공산주의 운동이 비로소 그 모습을 온전히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김성윤 엮음, 『코민테른과 세계혁명 1』, 거름, 1986, 25~26쪽.